

# 스페인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Holm-Detlev Köhler (스페인 오비에도대학교(University of Oviedo) 사회학 교수)

2008년 경제위기 발발 이후 스페인에서는 사회정치적 지형에 대변혁을 초래하고 노조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기한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변화가 발생했다. 유럽 타 국가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노조는 권력과 사회적 지지의 약화를 겪고 있었으며 노조가 효과적으로 재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기적 추세는 노조의 여러 주요 권한의 원천을 약화시킨 경기침체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조의 세 번째 도전과제는 대규모로 강력하게 전개된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운동,<sup>1)</sup> 그 후속으로 등장한 시민의 물결(Mareas ciudadanas),<sup>2)</sup> 존엄을 위한

\* 이 글의 원문은 Juergen Groete와 Claudius Wagemann가 편집한 *Social Movements and Organized Labor: Passions and Interests*(London, Routledge, 2018)의 pp.128~148에 “Social Movement Unionism in Spain?”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1) 이 운동의 이름은 스테판 헤셀(Stéphane Hessel)이 저술한 ‘분노하라(Indignez-vous!)’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유래했다. 나중에는 대규모 시위가 처음 열린 2011년 5월 15일(15 Mayo)을 가리켜 15M 운동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편집자 주: 인디그나도스(Indignados)는 스페인어로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경제위기 이후 긴축정책과 부패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광장 점거운동으로서 독재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주로 젊은 층에서 주도했으며 2011년 5월 15일 마드리드 푸에르테 델 솔 광장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청년실업과 긴축 재정정책에 항의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편집자 주: 스페인어로 ‘시민의 물결’로 불리는 이 시위는 2013년 2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회 인근 광장에서 수만 명이 정부의 긴축정책과 잇단 부패 추문에 항의하며 일어났다. 이 시위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부패에 대한 항의로 촉발되었으며, 실제로 돌아간 지난 1981년 2

행진(Marchas por la dignidad),<sup>3)</sup> 포데모스(Podemos) 운동 및 정당<sup>4)</sup>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정치적 저항운동(protest movements)들은 모두 전통적인 노동운동과 비판적 거리를 두고 활동하면서 전통적인 정당과 노조에 대해 근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노조 재활성화 전략(revitalization strategy)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SMU)' 개념이 대두되면서 노조는 시민사회로 재편입하고 새롭게 부상한 사회적 행위자들(social actors)과 새로운 동맹 및 연합을 형성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노조와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간에 연합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enabling and hindering factors)을 비교함으로써 스페인 상황에서 이러한 재활성화 전략으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문헌과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발견법적(heuristic) 개념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스페인 노조와 새로운 저항운동의 현황을 인디스나도스 운동의 여파와 장기적 경기침체의 맥락에서 기술한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노조 재활성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 및 노조와 새로운 사회운동 간의 상호접근(mutual approaching)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스페인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향후 전망에 관하여 견해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월 23일 쿠데타 32주년을 기념해 '시민의 물결 23F'으로 명명되었다.

3) 편집자 주: 2015년 3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으로서 시위대는 정부에게 고용안정과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높은 실업률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퇴거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퇴거 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냈다.

4) 편집자 주: 포데모스(Podemos)는 스페인어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포데모스는 2014년 1월에 반긴축과 반부패를 요구하며 창당된 신생정당으로서 정치학 교수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인디그나도스 운동의 여세를 몰아 창당하였다. 이후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에 대해 무능하게 대응하는 부패한 체제에 맞서는 대중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2015년 12월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함으로써 스페인 정치를 30년간 지배해온 양당 구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20세기 말에 경험한 노조 쇠퇴 현상으로 인하여 노조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영미권에서 먼저 시작된 관련 연구들은(Bronfenbrenner et al., 1998; Fairbrother, 2000; Milkman and Voss, 2004; Phelan, 2007) 이후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Pernot, 2005; Hoffmann, 2006; Dörre, 2011). 이미 20년간 연구자들은 노조 재활성화 전략들과 이를 상이한 노사관계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왔다(Baccaro et al., 2003; Frege and Kelly, 2004; Gumbrell-McCormick and Hyman, 2013; Lehndorff et al., 2018).

내부 쇄신과 외부 관계에 관한 여러 재활성화 전략들을 결합하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개념은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반기업 캠페인(anti-corporate campaigning), 노조-지역사회 연합(union-community coalitions), 새로운 사회운동과의 동맹,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탈관료주의(de-bureaucratisation), 비전통적 소속 집단(non-traditional membership groups)으로의 활동 확장 등은 모두 사회운동 지향성에 기반을 두어 노조의 사회적 실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의 예로 거론되었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최근 몇십 년간 거리가 멀어진 두 사회적 행위자들의 재결합을 시도한다. 노조는 사회 변혁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대규모 단체와 여러 사회적 요구 영역을 다양한 범위의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운동’에 떠넘긴 채 198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구 사회운동(old social movements)’을 대표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구 사회운동의 재활성화 전략이자 새로운 사회운동의 조직력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제주의와 같은 핵심적 측면은 다루지 않은 채 이 글은 아래 5개 차원에서 스페인 노조에 대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차원 I: 노조의 조직적 변화 및 내부 민주화(조직화)

차원 II: 새로운 사회운동의 조직적 안정성 및 인프라

차원 III: 연합형성(coalition building), 네트워킹 및 협력

차원 IV: 리더십과 이슈 프레임(issue framing: 의사소통적 권력 및 담론 권력)  
(communicative/discursive power)

차원 V: 전통적인 파업, 시위, 및 캠페인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 ■ 스페인 노조

스페인의 노조는 라틴계 지역 또는 지중해 지역 노조 모델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모델은 전통적으로는 대립적 전략이 특징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제도화(institutionalized) 및 조합주의 구조(corporatist structure)로의 통합이 두드러진다(Visser, 1998; Köhler & Calleja, 2013). 그러나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는 스페인 노조의 제도적 권한을 약화시켰고 대안적인 재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높였다. 스페인 노조운동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대략 19%대에 머물고 있는 낮은 조직률,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extension clause),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일부 노조총연맹(confederation)에 노조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촉진하는 법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이 전체 근로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스페인 양대 노총인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와 CCOO(Comisiones Obreras)가 교섭을 주도한다. UGT는 CCOO와 함께 사업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delegates)의 약 76%를 대표한다. 노동조합의 자유에 관한 법률(Law on Trade Union Freedom)은 일반적인 '대표성'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전국 수준의 노조 선거에서 노조 대표를 10% 이상 선출한 노총(UGT, CCOO)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일반적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세울 권리(right to representation)를 가지며 특정 국고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별, 산업부문별 또는 기업별 노조들은 지배적인 두 노총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스페인 노조는 내적 차원(구성원, 구조, 민주주의, 대표성 등)과 외적 차원(사회 및 여러 기관과의 관계) 양측 모두에서 크고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해야만 스페인 사회에서 관련 행위자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주의(unionism)의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부 논쟁에서 벗어나서 효과적 변혁을 일으키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Gago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페인 노조는 ‘사회적 협의(concertation)’ 또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로 불리는 가라앉은 배를 붙들고 있는 선장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Gago, 2013: 1100).

## ■ 스페인의 새로운 사회운동

2011년에 시작된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스페인의 사회정치적 지형을 크게 뒤흔든 예측하지 못한 지진을 의미했다. 고질적인 양당 구조(bipartidism), 대표노조 정책(representative trade union policy), 만연된 부패와 후견주의(clientelism) 관행 등이 대중들에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불안한 반응과 대항운동(counter-movements)은 노조 본부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에게 보장되었던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사라지게 했다. 약 100개의 시위 캠프가 전국 주요 광장에 설치되고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몇 개월간 크고 작은 스페인 도시들의 중앙광장은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율관리(civic self-management)를 실현하는 ‘아고라(agoras)’로 기능했으며, 점거운동(Occupy movements)과 같은 전 세계의 유사한 운동에 영감을 제공했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인디그나도스 운동이 후속 사회정치운동과 집단행동운동에 미친 영향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몇 년간 존엄을 위한 행진(Marches por la dignidad)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대중동원, 주택담보대출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Plataforma de afectados por la hipoteca)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옹호하는 단체, 시민의 물결(Mareas ciudadanas)과 같은 부문별 집단행동 운동, 대안적 성격의 정치조직 및 노조 등이 연이어 등장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행동관행에 대한 열린 태도, 반관료적이며 반위계적인 활동 방식, 전통적 정치조직 및 노조에 대한 노골적 비판과 거리두기, 자율성 및 자율관리에 대한 강조 등은 확실히 인디그나도스 운동과 그 후속 운동들을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통에 위치시킨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성은 조직적 민첩성

---

(organizational agility)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급진적인 민주적 요구 현안(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무료 이용, 쌍방향 시민참여 등)이 되기도 하면서 대안적 사회운동의 2차 물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중운동으로 2018년 3월 8일에 일어난 페미니즘 여성 총파업(feminist general women's strike/8M 2018)을 들 수 있다. 모든 노조와 무수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은 전국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파업과 시위를 촉구하고 실질적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의 근절을 요구하면서 모든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을 동원했다. 이 운동(8M 2018)은 스페인 여권운동에서 역사적인 성공 사례로 간주된다.

## ■ 스페인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전통적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의 명백한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추진력을 고려해 볼 때,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형태의 노조 재활성화 전략은 고도로 제도화된 근로자단체(workers' organizations)가 채택하기에는 어렵고 위험한 전략이긴 하지만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전략은 현 상황에서 스페인 노조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노조와 사회운동 양측 모두에서 거대한 이행 장벽에 직면해 있다. 가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개념 부분에서 소개한 바 있는 5개 차원을 중심으로 최근 노조와 새로운 사회운동 간 관계를 살펴본다.

차원 I: 지난 몇 년간 노동시장의 불안정화(precairisation)와 분절화(fragmentation)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들 간에 그리고 근로조건들 간에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여성, 청년, 이민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의 노조 가입률은 낮다(Köhler & Calleja, 2011). 이로 인해 노조와의 동일시 결여부터 세대교체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노조 활동에 특수한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관행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가치사슬(value chain)이나 산업단지, 공항 전체, 심지어 특정 지역(territory), 구역(quarter) 또는 지구(district)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가 단체교

섭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전략을 통해 노동력의 분절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노조의 실효성과 공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내부 토론포럼, 여론조사의 적극적 활용, 자성을 위한 공간 마련, 공개 세미나, 투표를 통한 주요 결정 및 합의 도출 등을 통해 현재 정기회의에서 나타나는 파벌 간 충돌을 대체해야 한다.

차원 II: 인디그나도스와 그 후속 사회운동들은 제도의 대표성 결여와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기존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및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노조는 이러한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부당한 정책과 대중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노조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회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증폭시켰다. 2014년에 창립된 새로운 저항정당(protest party)인 포데모스는 의회 진출에 성공하고 스페인 2대 도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최근 선거에서는 지지가 약화되었지만 포데모스는 현재 사회주의노동자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좌우 양측에서 신생 정당들이 출현하면서 정치권의 양당 구도가 무너졌지만 주요 노조인 UGT와 CCOO는 소규모 풀뿌리 노조들(grassroots unions)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힘이 서서히 쇠퇴하면서 포데모스는 사회적 지지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일부 상실한 채 제도적 체계(institutional system)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안적 참여 및 동원 채널을 통합하고 다수 노조들을 대상으로 보다 야심 찬 재활성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하였다.

차원 III: Frege et al.(2004: 137)은 노조 재활성화를 위해서 노조를 사회운동으로 재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가 근로자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이해까지 포함하도록 목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노조는 새로운 가치와 대의를 포함하고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과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담론(discourse)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조를 포함한 100여 개 시민단체 연합인 ‘사

---

회정상회의(Social Summit, 2012)’의 사례와 같이 노조와 새로운 사회운동 간에 지속가능한 연합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2015년 이후 스페인 사회의 전반적 탈동원화(demobilisation) 추세와 교착 정국이라는 상황에서 실패했다. 현재 기후변화연합을 위한 일부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전통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의 일자리를 옹호하는 노조 측 입장은 매우 양면적이다.

차원 IV: 경쟁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확대되면서 노조 쇄신(union renewal)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Hyman, 2007; Gumbrell-McCormick & Hyman, 2013; Bernaciak et al., 2014). 이는 유토피아적 지평의 회복,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 옹호, ‘정의의 칼(sword of justice)’이 되고자 하는 조직으로의 노조 이미지 변신 등을 의미한다(Flanders, 1970: 15). 그러나 노동시장의 분절화, 북동부 지역에 있는 카탈루냐의 강력한 분리독립 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2015년 이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안정적인 정부의 부재 등과 같은 냉혹한 현실로 인해 노조는 다시 전통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기본적인 노동권 및 사회권의 유지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방어적 입장에 몰리게 되었다.

차원 V: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전통적인 레퍼토리(repertoires)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노조들 사이에서 존재한다(Hyman, 2007: 220).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조직과 구성원 또는 잠재적 구성원들 간에 보다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길거리 연극, 공연, 타악기 밴드인 ‘바투카다(percussion/batucada)’ 연주, 공공시설물을 둘러싼 인간띠 잇기(human chains) 등 ‘시민의 물결(Mareas Ciudadanas)’에서 실행된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동원은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형태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효성과 적절성을 상실한 시위나 또는 파업과 같은 전통적 형태를 보완할 수 있다. 혁신적 형태의 동원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생산정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행동주의(e-activism)를 전개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neoliberal economic globalization)에 맞서기 위해 실질적인 평형추로 작용해야 하는 새



로워진 국제 노동조합주의(international unionism)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 ■ 결론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관점에서 스페인 노동조합주의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최근 발전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복잡하면서도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강력한 노조 재활성화 전략이자 새로운 사회운동의 통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갖는 잠재력은 노조 조직의 보수적 관성 및 두 사회적 행위자 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리감과 대조된다. 현재까지는 노조와 사회운동 간의 상호접근(mutual approach) 및 깊은 동맹을 저해하는 요인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잠재력을 5개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노조 쇠퇴 및 사회운동들 간의 통합이 약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그나도스 운동이 수년간 기성 제도, 엘리트 및 담론을 무너뜨리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사회운동들은 2015년 이후 쇠퇴와 탈동원화 과정에 접어들었다(차원 II). 소수당 정부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강력한 독립 운동)와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높은 실업률, 불안정성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정치적 위기가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정치적 불신이 또 다시 스페인 사회에 널리 퍼졌다. 정치제도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체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포데모스 운동에 대한 실망감은 탈동원화(demobilisation)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새로운 사회운동과 소수노조가 주도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과 항의시위는 대형 노조의 보수적 관성을 깨뜨리지 못하였다(차원 V). 주요 노조들의 내부 구조 개혁과 세대교체, 평조합원(rank and file members)의 권한 강화(차원 I), 새로운 형태의 노조 리더십과 담론(차원 IV) 등의 부문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합과 동맹 차원에서는(차원 III) 시민의 물결, 페미니즘 총파업, 최근의 일부 기후변화연합 등과 같이 여러 유망한 임시 연합들이 상호 지원하면서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깊이 있는 지속가능한 연합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스페인 노동조합운동은 수십 년간의 투쟁과 집단행동을 통해 획득한 상당한 권리와 성취를

지켜내야 할 필요성과 깊이 있는 혁신 사이에서 전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강력하고 성공적인 사회운동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 노조는 종래의 논쟁적인 행동을 보완하고 행동 레퍼토리와 업무방식을 확장하는 전략과 정체성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 제도화(social democratic institutionalisation)에 대한 노조의 의지는 파괴적(disruptive)일 수 있는 노조의 능력을 제약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업무방식을 변경하고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노조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높은 전략이다.

경기침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에 반대하여 발생한 사회적 불안 및 급격히 증가한 새롭고 다양한 사회정치적 저항운동들은 스페인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에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노조는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효과적인 재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여 누적된 조직병(organizational diseases)을 극복하도록 촉구받고 있다. **KL**

---

---

## 참고문헌

---

---

- Antón, A.(2007), *Jovenes trabajadores y sindicalismo en España. Análisis de un desencuentro*,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Tesis Doctoral).
- Avdagic, S., Rhodes, M., & Visser, J.(2005),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social pacts: A provisional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N-05-01*, Brussels: Eurogov.
- Baccaro, L., Hamman, K., & Turner, L.(2003), The Politics of Labour Movement Revitalization: The Need for a Revitaliz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pp.119-133.
- Beneyto, P.(2010), *Estudios sindicales n° 37: Afiliación y representatividad sindical en Europa*, Madrid: Fundación 1º de Mayo.
- Bernaciak, M., Gumbrell-McCormick, R., & Hyman, R.(2014), *Trade Unions in Europe. Innovative*

*Responses to Hard Times*, Berlin: Friedrich Ebert Stiftung.

- Bronfenbrenner, K., Friedman, S., Hurd, R., Oswald, R., & Seeber, R.(1998), *Organizing to win. New Research on Union Strategie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 Crouch, C.(1993), *Industrial Relations and European State Traditions*, Oxford: Clarendon.
- Dörre, K.(2011), “Functional Changes in Trade Unions. From intermediary to Fract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Union of Action Research* 7(1), pp.8-48.
- Fairbrother, P.(2000), *Trade Unions at the Crossroads*, New York: Routledge.
- Flanders, A.(1970), *Management and Unions*. London: Faber & Faber.
- Frege, C., & Kelly, J.(2004), *Varieties of Unio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ge, C., Heery, E., & Turner, L.(2004), “The New Solidarity? Trade Union Coalition Building in Five Countries,” In C. Frege, & J. Kelly, *Varieties of Unionism*, pp.137-1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go, A.(2013), Los sindicatos mayoritarios CCOO y UGT ante la crisis económica: ¿Declive o revitalización? *Anuario del Conflicto Social* 2012, pp.1075-1104.
- Gumbrell-McCormick, R.(2011), “European Trade Unions Towards ‘Atypical’ Worker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3), pp.293-310.
- Gumbrell-McCormick, R., & Hyman, R.(2013), *Trade Unions in Western Europe. Hard Times, Hard Cho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mman, K., & Martinez-Lucio, M.(2003), “Strategies of Union Revitalization in Spain: Negotiating Change and Fragmentatio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9(1), pp.61-78.
- Hoffmann, J.(2006), *Arbeitsbeziehungen im Rheinischen Kapitalismus*,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 Huke, N., & Tietje, O.(2014), “Zwischen Kooperation und Konfrontation Machtressourcen und Strategien der spanischen Gewerkschaften CCOO und UGT in der Eurokrise,” *Industrielle Beziehungen* 21(4), pp.371-389.
- Hyman, R.(2001), *Understanding European Trade Unionism. Between Market, Class and Society*. London: Sage.
- Hyman, R.(2007), “How can Trade Unions Act Strategically?” *Transfer* 13(2), pp.193-210.
- Kelly, J.(1998), *Rethinking Industrial Relations: Mobilization, Collectivism and Long Waves*, London:

---

Routledge.

- Köhler, H.-D.(2008), *Los sindicatos españoles ante los retos de la modernización y el cambio tecnológico*, Madrid: Fundación Alternativas.
- Köhler, H.-D., & Calleja, J.(2011), “Los determinantes de la afiliación sindical en España,” *Revista del Observatorio Confederal de Afiliación* (2), pp.36-58.
- Köhler, H.-D., & Calleja, J.(2013), *Trade Unions in Spain: Organisation, Environment, Challenges*, Berlin: Fiedrich Ebert Stiftung.
- Lehndorff, S., Dribbusch, H. & Schulten, T.(eds.)(2018), *Rough waters. European trade unions in a time of crises*, Brussels: ETUI.
- Martínez-Lucio, M.(1998), “Spain Regulating Employment and Social Fragmentation”(2nd Ed.), In A. Ferner, & R. Hyman,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pp.426-458, Oxford: Blackwell.
- Milkman, R. & Voss, K.(2004), *Rebuilding Labor. Organizing and Organizers in the New Labor Movem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oody, K.(1997), “Towards an international social-movement unionism,” *New Left Review*, pp.52-72.
- Pernot, J.-M.(2005), *Syndicats, lendemains de crise?* París: Galiimard Folio Actuel.
- Phelan, C.(2007), *Trade Union Revitalisation*, Bern: Peter Lang.
- Rhodes, M.(1997), “Spain,” In H. Compston, *The New Politics of Unemployment*, pp.103-122, Routledge: London.
- Turner, L.(2005), From transformation to revitalization: A new research agenda for a contested global economy,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2(4), pp.383-399.
- Visser, J.(1998), “The Europeanisation of Trade Unions,” In P. Pasture, & J. Verberckmoes, *Working-class internationalism and the appeal of national identity*, pp.231-257, Oxford: Berg.